

가 정 통 신 문

(봄날 어버이날 행사)

가정통신문 2026- 5월호

일 시 : 2026. 05. 29 (금)
작 성 : 봄날재활주간보호센터
전화번호 : 055-724-3393
주 소 : 경상남도 김해시
내외중앙로 74, 301호
(밝은메디컬센터)

보호자님, 안녕하십니까?

싱그러운 초록이 짙어지고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5월입니다. 변함없이 저희 **봄날**을 믿고 소중한 부모님을 맡겨주시는 보호자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이번 달에는 일 년 중 봄날에서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날, 어르신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준비했던 '**어버이날 기념 행사**'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.

한 달 전부터 어르신들께 어떤 기쁨을 드릴까 고심하며 **선물을 고르고 음식을 준비**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, 어르신들을 향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행사 당일, 저희 직원들이 사랑을 가득 담아 어버이 은혜 노래를 부르고 큰절을 올려드린 후 가슴에 **카네이션**을 달아드렸을 때,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저희의 마음도 함께 울컥해졌습니다. 올해는 특별히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**<고고장구>**와 **<마술 공연>**을 준비했습니다. 초청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실 정도로, 앵콜의 앵콜이 이어지며 온 센터가 들썩이도록 신명 나게 춤추고 웃으시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. 공연 후에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메뉴로 정성껏 차려낸 '**봄날 뷔페**'가 열렸습니다. 인기 만점이었던 시원한 얼갈이 물김치와 향긋한 미나리 오징어무침, 그리고 건강을 생각한 **흥국쌀·강황쌀** 밥까지 대접해 드렸는데요. "내 평생 먹은 닭고기 중 제일 맛있다", "수박이랑 떡 좀 더 주이소" 하시며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부른 하루였습니다.

더불어 지난 겨울 조끼를 너무 잘 입어주셔서, 이번에는 여름철 센터 내에서 시원하고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**단체의류(여름용 조끼)**를 준비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.

어르신들의 환한 미소 덕분에 봄날은 오늘도 화사하게 빛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봄날은 어르신들의 매일매일이 봄날처럼 따뜻하고 신명 날 수 있도록,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늘 보내주시는 보호자님의 두터운 신뢰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



이번 달 가정통신문과 제공기록지, 식단표 그리고 다음 달 프로그램 계획을 동봉해서 보내드리니,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어르신들께서 늘 건강히 지내실 수 있도록 정성껏 살피고 보살피겠습니다.

블로그에는 더 많은 사진과 사랑스러운 어르신들의 일상이 남겨져 있습니다. 방문 부탁드립니다.

블로그 주소 : https://blog.naver.com/bomnal_8/224022780063

봄날재활주간보호센터